



**1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무대  
“3년 정착해 살았던 광주는  
우리 부부에게 제2의 고향”**

1965년 레너드 번스타인이 심사를 맡은  
‘리벤트리트 콩쿠르’ 우승 ... 해외 콩쿠르 한국인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 조성진 정말 자랑스럽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74)씨는 지난 2010년 전혀 연고가 없던 광주에 정착해 3년간 머물렀다. 지난 2013년 미국으로 돌아가 아리조나주 투산에 살고 있는 한씨가 3년만에 다시 광주를 방문, 아내 이혜련씨와 듀오 피아노 콘서트를 연다. 1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한 씨는 광주에서 살았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한다고 했다.

“3년 동안 살았던 광주는 우리 부부에게 있어 한국의 ‘고향’입니다. 짧은 시간 같지만 따뜻한 분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아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때 아쉬움이 많았는데 다시 광주를 방문해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이번에 일본 하마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심사를 하게 됐는데 일본과 가까운 광주에 꼭 다시 오고 싶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연주회를 가졌는데 이곳도 광주에 머물 당시 연주회를 했던 곳

입니다.”

한 씨 부부의 이번 듀오 콘서트는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모금 콘서트로 준비했다. 한 씨 부부는 광주에 머물 당시에 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연주회를 연 적이 있다.

“음악으로써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저희로서 하나의 큰 축복이고 보람있는 삶입니다. 전남대 병원은 광주에서 열렸던 연주회 수익금을 전남대 병원 소아암 환우들에게 기부한 적도 있고 전남대 병원 로비에서 특별한 연주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전남대 병원 소아암 환우를 다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이번 콘서트의 의미를 깊게 해줍니다.”

이번 연주회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네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F장조’, 라흐마니노프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조곡 2번 작품번호 17’이다. 또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씨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한다.

한씨는 “이번에 들려드리는 곡은 아내와 같이 즐기고 사랑하는 곡들”이라며 “어떤 기교 등을 보여주기 위한 연주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하고 즐기는 곡의 연주를 통해서 관객들과도 음악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한 씨는 한국인 최초의 해외 콩쿠르 우승자다. 이미 14살 때 뉴욕 필하모닉과 협연 하고 1962년 케네디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연주회를 열었던 그는 지난 1965년 레너드 번스타인이 심사를 맡았던 제24회 리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한씨는 최근 쇼팽 콩쿠르에서 우수한 조성진씨에 대해 “박수 갈채로 축하드린다”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인 리즈 콩쿠르 심사 이야기도 들려줬다.

“얼마전엔 영국 리즈 피아노 콩쿠르에서 심사했습니다. 젊은 한국 피아니스트들이 세계 곳곳에서 공부하며 국제 콩쿠르에 많이 참가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콩쿠르 심사는 제가 그들의 연주를 직접 보며 들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입니다. 리즈 콩쿠르에서 김선욱 씨가 몇년 전에 1등한 후로 올해는 김희재 씨가 2등을 차지하고 유명한 Halle오

케스트라에서 특별상으로 5000파운드를 받는 걸 보며 자랑스럽고 한국인으로 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한 씨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제가 아직 소년이었던 1956년과 1957년, 애리조나 투산에서 독주회를 했어요. 그 때 아름답고 조용한 사막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아내와 같이 멕시코에서 연주회를 마치고 다시 이곳을 방문했는데 아름다운 환경에 또 한번 반했습니다. 선인장과 특이한 나무들, 신기한 야생동물들이 많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는 정원에서 새 구경도 하고 기막힌 저녁 노을 사진 찍고, 계절마다 신비로운 자연에 흠뻑 젖어 삽니다. 주위의 친구들과 모여 흡연소도 하며 아내가 준비한 맛있는 식사를 친구들과 나눕니다.”

한 씨의 내년 연주 일정도 뽐뽐하다. 2016년에는 멕시코에서 이씨와 듀오 콘서트를 열고 뉴욕국제피아노 콩쿠르 심사도 예정돼 있다. 또 영국 옥스포드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에서 독주회와 마스터 클래스를 열 예정이다.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2-511-19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노 앙상블 클라랑 정기연주회**

오늘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최연주·조혜원 ‘상어’ 등 연주



최연주 조혜원

피아노 앙상블 클라랑 4번째 정기연주회가 1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최연주씨와 조혜원씨로 구성된 클라랑은 지난 2011년 결성 후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신대를 거쳐 독일바이마르 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최연주 장교정을 마친 최씨는 호남신학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역시 호신대 출신으로 오스트리아 린츠 안톤 부르크너 주립음대에서 수학한 조씨도 호신대, 전남예고 등에 출강중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인생의 고통’, 브루흐의 ‘판타지 작품 번호 11’, 피아졸라의 ‘상어’, 천사의 밀물가, 천사의 죽음’ 등이다.

드림의 김민호, 베이스의 김하성, 퍼커션의 이동관씨가 협연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10-5336-727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노점상과 상인들의 생존기 ‘낙찌’ 공연**

청춘, 20~22일 서구문화센터

노점상들과 상인들의 생존기를 소재로 한 블랙 코미디가 공연된다.

극단 청춘이 창작극 ‘낙찌’를 무대에 올린다. 20일 오후 8시, 21일 오후 7시, 22일 오후 5시 광주서구문화센터.

작품의 배경은 지방의 어느 전통시장. 1년차 노점상 나홍주와 30년이 넘는 노점상은 오늘도 자릿세를 징수하러 온 관리인 지춘성과 합판한다. 노점상들은 자신들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관리인들을 ‘낙찌’라고 부르고, 어느 날 지춘성이 살해당하면

서 사람들은 누가 그를 죽였는지 파헤친다. 그가 죽은 가게 앞에 설치된 CCTV를 보기 위해 사람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데...

국민성씨의 희곡을 바탕으로 극단 대표 오설균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문진희, 고난영, 김은미, 채희영, 한종신, 홍혁진, 김경오, 조은영, 최영운씨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000원. 전화 및 카페에매 30% 할인. 극단 청춘 카페(cafe.daum.net/cctheater),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목포 신혼초 고훈호 양 ‘에스24 어린이독후감’ 대상**

제12회 에스24 어린이독후감대회에서 목포시 신혼초등학교 5학년 고훈호 양이 대상을 수상했다.

인터넷서점 에스24는 지난 14일 서울 노랑진 CTS 아트홀에서 수상 어린이와 학부모 등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에스24 어린이독후감대회’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에스24 어린이독후감대회는 소년한국일보가 공동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2화째를 맞았다.

이번 제12회 에스24 어린이독후감대회는 약 2600여 초등학교에서 참여했으며, 약 8500여 편의 독후감과 동시가 접수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동시부문에서는 동시 1300여 편이 응모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대상 외에 최우수상 2명, 금상 7명, 은상 13명, 동상 65명, 장려상 500명, 동시상 30여명 등 모두 618명이 입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성진 쇼팽 콩쿠르 음반 5만장 1주일 만에 매진**

지난달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폴란드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의 콩쿠르 실황 연주 음반 5만장이 발매 1주일 만에 매진됐다.

13일 이번 음반의 유통사인 유니버설 뮤직에 따르면 도이체 그라모폰(DG)이

지난달 9일 전 세계 동시 발매한 조성진의 ‘2015 쇼팽 콩쿠르 우승 앨범’의 국내 초도 물량 5만장이 지난 12일 자로 모두 판매됐다.

발매 첫날인 지난주 금요일에 출고된 3만장은 주말 사이 모두 판매됐고, 월요일인 지난 9일부터 추가로 출고된 2만장

도 나흘 만에 매진됐다.

음반에는 예선과 본선 1차에서 연주한 ‘녹턴 op.48-1’, 2차에서 연주한 ‘소나타 op.35’와 ‘폴로네이즈 op.53’, 3차에서 전 ‘24개의 프렐류드 op.28’이 담겼다.

유니버설뮤직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10만장 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쇼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

월 수익 (1,02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7억**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상무지구 5층, 90평)

→ 5층전용, 90평

즉시입주가 / 시설완비

(주차2대 무료)

(시비 약간 있음)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우리은행 뒷)

**→ 보 2천, 월 130만**

**신축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신축 상가원룸 (4면 대리석시공)

1층 (상가,1칸)  
2층~3층 (룸10개)  
4층 (주택)

월 수익 (450만)  
(보 4,000만, 용 1억)

**→ 매가 6억9천**

**법률경매**

-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 건 904평)  
감정가 35억4천 → **24억8천**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1층상가, 120평~2~7층 룬 60개~8층, 주택겸사무실)  
☆ 분할등기가능 (향후 60억가치있음)  
☆ 임대수익 (보 3억, 월세 3천만)
- 서구 농성동 (토 86평, 건 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악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서구 키지사 부근
- 동구 계림동 (토 90평, 건 202평)  
감정가 6억6천 → **최저가 4억6천**  
→ 1층 (소매점) 2층~4층 (룸15개)  
☆ 홈플러스 남서측 위치 (남향)
- 서구 풍암동 (토 106평, 건 178평)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4억4천**  
→ 1층 (룸 7개) 2층 (룸7개) 3층 (룸5개)  
☆ 윤리 중학교 부근 8m포장 도로 접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 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움실론, 경매컨설팅 교육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토 44평, 건166평)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2억5천**
- 북구 신안동 (근린주택) (토 53평, 건 140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90, 건364평)  
감정가 12억2천 → **최저가 8억5천5백**

**수익성 상가 (근린시설,통건물)**

- 수원지구 (우미린A.P.T 앞) 4층건물 (매지 144평, 건 260평) → 매가 17억
- 상무지구 5층건물 (우리은행) 금융가터 (월수익 1,000만 - 보2억, 용6억) → 매가 20억
- 상무지구 상가 5층건물 (롯데마트앞) (매지 122평, 건 2423평) → 매가 28억
-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 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5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 월60만) (용 5천) → 매가 1억1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 나주 삼영동 2층 상가 매매 (나주혁신도시 10분, 나주시청2분) (보2천, 월200만) → 매가 3억
- 상무지구 정연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 매가 1억3천만 (보1천, 월60만) 임대완료
-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보5백, 월 45만- 임대완료) → 매가 8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용4천)(보5백, 월 42만) → 매가 7천5백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4천5백만

**신축원룸 매매 (상가겸용)**

-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부, 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7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보4천5백, 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12개-투룸12개, 원룸6개) (보4천5백, 월720만) → 매가 11억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용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3천8백만 (보2백, 월25만)
- 광양 광영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천, 월25만) → 매가 3천8백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역1번출구 3분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천6백만

010-7384-7800

010-6670-9800

062-382-5500, 010-6832-9700